



9면

무풍 심승지 어울림센터 개관식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음 5월 5일) 제352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가 열린 지난 8일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관계자들, 해병대 단체,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한목소리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전북도민대회

민주 자치도당, 도내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개최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尹정권 퇴출의 도화선”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집회가 고(故) 채수근 상병의 고향인 전북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오후 4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원, 도내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단체 등과 함께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특검법 거부 윤석열 정권 온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먼저 단상에 오른 이성인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 학생회장은 애도사에서 "원광대 22학년 채수근은 비정상적인 욕심 때문에 너무 일찍 전역했다"며 "우리는 채수근 학생의 죽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원래 가져야 할 미래를 빼앗은 이들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고 헌법상 권한, 거부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고 있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단상 위에 올라 한목소리를 냈다.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민의 뜻을 짓밟는 국민 무시 정권,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무도 정권, 진상규명이라는 최소

한의 책무도 하지 않는 무책임 정권, 저희는 국민과 함께 3무 정권에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들과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덕 의원(전주갑)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 서서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을 관철하고 진실을 밝혀내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운 의원(전주을)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아내를 수사해달라는 우리 국민이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고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본인에 대한 특검이나 다름없다"며 "용산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정부여당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윤석열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남원 출신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4·19의 도화선이 불붙고 이승만 독재 정권을 퇴출시켰다"며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이야말로 윤 정권 독재정권 퇴출의 도화선이다. 이 사건은 채상병 특검이 아닌 윤석열 특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 JTBC에서 공개된 태블릿 PC가 도화선이 됐다"며 "채상병 진실을 규명하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때 드디어 (탄핵의)도화선에 불이 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국가가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 사건"이라며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우리가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금의 1,000명이 1만명을 만들고 10만명을 만들어내면 이번 집회가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이곳은 제가 1987년 전두환·노태우 물러가라고 민주화 운동하면서 투옥됐던 경험이 있는 전북대 앞 거리"라며 "그 결의로 전북자치도민, 당원 등 지지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은 "오늘이 채 해병이 사망한 지 328일 제12년

이 지난달 2일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아들이 군대에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통과시킨 것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이제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오늘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이 거부하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36일만에 재가동

가스폭발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이 사고 발생 3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지난 7일 리사이클링타운에 내린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전주지청은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의 안전·보건 이행 조치를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일 오후 6시 42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성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4개 운영사가 리사이클링타운에서 음식물 처리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 “세계한인비즈니스 참가 신청하세요”

재외동포청, 8월 31일까지 신청접수

10월 22~24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

재외동포청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참가 접수를 8월 31일까지 받는다.

대회 참가 등록은 한상넷 홈페이지(www.hansang.net)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자 신청과 함께 기업전시회 부스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도 받으며, 일반인의 참가는 무료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국내에서 여는 첫 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MBN이 주관하게 된다.

대회는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리딩 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벤처캐

피털(VC) 투자포럼 등 최근 경제 이슈를 반영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청년 창업경진대회, 해외인턴십 설명회, 전북지역 문화·관광·산업시찰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참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외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회 등록이 시작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전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 제22대 총선 등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전북선관위, 총 24억7000여만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총 24억7,000여만원을 지난 7일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한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

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3억5,500여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등이다.

선거별 최종보전액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3억2,000여만원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보궐선거 8,900여만원 △장수군의회의원선거 6,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운반비용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5,000여만원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김재훈 기자



초록단풍명소

# 내장산

쏟아지는 햇살

깊은 골짜구니에서 불어오는

초록빛 바람

좋은 이들과 즐기는

여름날의 내장산...



#내장산 우화정



#내장산 단풍터널

#내장산 우화정

